

도교 버리고 불교 받든 '황제보살'

중국불교의 거사들 <7>

남조(南朝)의 거사불교①-양무제(梁武帝)

북조(北朝)에서 황권을 중심으로 불(佛)과 폐불(廢佛)이 진행했던 동시대에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하는 남조에서도 황제 중심의 불교가 흥성했다. 그러나 안정되지 못한 남조의 정치적 상황으로 송(宋)·제(齊)·양(梁)·진(陳)의 대다수 황제들은 단명했지만, 양무제(梁武帝: 464~549)는 통치기간(502~549)이 가장 길었다. 양무제는 안정된 통치를 바탕으로 '불심천자(佛心天子)' '보살황제'로 칭해질 정도로 다양한 불사를 일으켜 불법에 귀의한 중국 역대 황제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 그에 따라 후대에 '달마 대사와의 문답' '부처님께 헌화한 공덕으로 얻은 황제자리' 등 양무제와 관련된 다양한 전설이 부가됐다. 따라서 남조 거사불교의 대표로서 양무제의 진면목을 소개한다.

양무제의 본명은 소연으로 본래 도교를 신봉하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 소순은 바로 제(齊)나라 황제인 고제(高帝)의 가까운 친척으로 시중(侍中), 위위(衛尉) 등 고관을 지냈다. 소연은 어려서부터 유

한 지 3년(504)에 양무제는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선포했다. <광홍명집(廣弘明集)> 권4에 기재된 양무제의 '도교를 버리고 불교를 받들'이라는 글에는 "내세에는 동진으로 출가하여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함께 성불하고자 함"과 "올바른 법에 들어 가나긴 윤회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노자(老子)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잠시 생전(生天)함을 즐기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이렇게 불교에 귀의한 양무제는 그로부터 불교공부에 심취했고, 천랍(天覽) 18년(519)에는 드디어 종산(鐘山) 초당사(草堂寺)의 혜약(慧約) 스님으로부터 황제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삼배의 예를 올리며 보살계(菩薩戒)를 수지했다. 도교를 버리고 불교에 귀의한다는 선포를 한 지 15년이 경과한 때의 일이다. 이로부터 양무제는 스스로 '보살황제'라고 칭하였으며, 신하들이 공문서를 상주할 때에 황제를 '황제보살'이라고 표기했다.

양무제는 보살계 수지 후, 철저하게 계율을 지켰



그림 · 김홍인

神論'인데, 이는 분명하게 해원 스님의 '법성론'을 계승한 것이다. 해원 스님은 '법성의 실유(實有)'를 제창해 '열반'과 '성불'을 설명했다. 양무제도 잡다한 '신(神)'이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해원 스님과 양무제의 이러한 이론들은 중국불성론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후대에 정립된 중국불성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도기적인 성격이 농후하지만, 당시에는 가장 새롭고 뛰어난 이론이었기 때문이다.

양무제는 무엇보다도 불교가 유교와 도교 양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다. 당시의 외래종교인 불교의 흥성으로 전통사상인 유·도 양가와 심각한 대립관계를 초래하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양무제는 "유교는 윤리도덕을 지키게 하며, 도교는 지나치게 득실을 따지지 않게 하고, 불교는 극락세계로 이끌어 준다. 그 근원은 모두 같다"는 '삼교동원(三教同源)'설을 제창하고, 공자·노자·석가를 '삼성(三聖)'으로 받들었다.

삼교동원설에 따라 양무제가 황제 등극 후, '도교를 버리고 불교를 받들'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결코 도교와 유교를 버리지 않았다. 특히 양무제는 당시 유명한 도사 도홍경(陶弘景)과 국가의 모든 중대사를 그와 논의해 결정했을 만큼 도교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 세상에서는 도홍경을 '산중의 재상'으로 칭했다. 양무제의 입장은 '삼교일치'의 원형으로 평가받는다. 이외는 반대로 통치술의 일환으로 불교를 이용했다는 비판적 의견도 있다. 실제로 양무제는 '불심천자' '황제보살'이라는 명칭과는 어울리지 않게 수차례 군대를 일으켜 이웃나라를 침략했고, 자신의 황제자리를 지키려 많은 살생도 했다.

<자치통감(資治通鑑)>의 저자인 사마광(司馬光)은 이런 양무제를 '유·도 양교 뿐 아니라 불교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죄인'으로 묘사했다. 선종의 전설로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벽암록>의 제1칙의 '달마 대사와 양무제의 문답'은 바로 이 점을 선(禪)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양무제의 최후는 그의 화려했던 일생에 비한다면 비참했다. 548년 동위(東魏)로부터 양무제에게 투항한 후경(侯景)의 반란이 있을 이듬해, 후경의 군대에 포위돼 처량하게 굶어 죽었다. 양무제의 비참한 최후는 어쩌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교신앙을 이용했던 것에 대한 과보가 아니었을까.

불교거사로서의 양무제는 근본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황제로서 그가 보여준 여러 신앙적 행위는 이후 중국불교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가 보여준 '사신공양'이나 다양한 법회의 개최, 교외에 대한 강설 등은 이후 전체적인 중국 거사불교의 귀감으로서 설정됐다. 또한 양무제의 '진신론'은 중국불성론의 한 과정으로 중요한 사상사적 의의를 보인다.

■ 김진무(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계율 스스로 철저히 준수·불교 교의 연구 몰두

"불교를 세속 권력유지 통치술로 이용" 비판도

(備)·도(道) 양가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호조(戶曹)의 관리를 맡았고, 황제를 수행해 군대를 이끄는 등 다양한 능력을 보였다. 특히 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제나라를 침공했을 때 소연은 뛰어난 전략으로 북위의 군대를 무찔렀다. 이러한 공로로 명제(明帝)의 신임을 받은 소연은 태자 중서자(太子中庶子)에 임명됐다. 그 후 명제가 병사하고 그의 아들이 황제에 올랐지만, 무능하고 성격이 잔인했던 탓에 원성이 자자하게 됐다. 소연은 군사 일을 맡아 황제를 가두고 스스로 대사마(大司馬)의 관직을 맡아 국가의 전권을 쥐었다. 소연은 대권을 탐하지 않았지만 그의 친한 벗이었던 집약과 범운(范雲)이 문무백관을 설득하고, 결국 친제(親帝)를 하여 양(梁)의 무제(武帝)로 등극했다.

이런 양무제의 즉위 과정은 그가 학문적으로 뛰어난 것과 별도로 용병과 정치에 역시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황제에 즉위한 양무제는 제나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치국(治國)에 전념했다. 현존하는 자료로는 양무제가 불교에 귀의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즉위

다. 오신채와 육식도 하지 않았다. 당시 일부 승려들이 계율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목도한 양무제는 <단주육문(斷酒肉文)>이라는 글을 써 "여래의 옷을 걸치고 여래의 행동을 하지 않는 자는 승려의 이름을 빌린 것에 지나지 않고, 도적과 다를 없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불제자의 나라에서 하나의 백성이므로 황제의 권력으로 그 죄를 묻겠다"고 했다.

양무제의 불교에 대한 신앙은 사찰의 건립으로 나타났다. 그는 부모와 명승을 위해 광택사(光宅寺), 개선사(開善寺), 동태사(同泰寺), 대경사(大敬愛寺), 지도사(智度寺), 동행사(同行寺) 등 수많은 명찰을 건립했다. 그렇게 건립한 사원들의 운영을 위해 막대한 재물의 보시를 아끼지 않았다. 심지어 조정 관료들에게도 재시를 강요했고, 백성들에게도 역시 재시를 분담케 했다. 이러한 결과 민생은 점차 피폐해졌다.

양무제의 신앙은 '사신공양(捨身供養)'으로도 나타났다. 관련 기록에 따르면 527년, 529년, 546년, 547년 등 네 차례에 걸쳐 팔을 때는 4일에서 길게는 37일 동안 국경을 모두 제쳐두고 동태사로 들어갔

다. 동태사에서 양무제는 황제의 옷 대신 승복을 입고 사찰의 허드레 일을 했다. 어느 날은 모든 관료들이 동태사 동문에 모여 국정을 살펴달라고 몇 번이고 청한 후에 궁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다.

양무제는 불교에 귀의한 후 대규모의 법회를 자주 개최했다. 특히 수많은 고승들을 초청해 경전을 강독하는 법회를 좋아했다. 스스로 불교에 대한 연구도 계속했던 양무제는 말년에는 친히 교외에 대해서도 강설했다. 이런 그의 강설은 점차 대규모로 진행됐다. 기록에는 "533년 2월에 친히 7일 동안 강설했는데, 황태자를 비롯하여 문무백관과 승려, 심지어 외국의 사절까지 포함하여 무려 30여만 명이 참여했

다"고 한다. 이는 황제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려서부터 이미 뛰어난 학자로서 인정받았던 양무제가 불교의 교의에 대하여 새로운 이론들을 제시하였던 까닭도 있었다.

양무제는 초기에는 삼론학(三論學)에 깊은 관심을 갖고 당시 유명한 고구려 승랑(僧朗) 스님에게 귀의하였다. 그러나 후기에는 점차로 '열반불성론'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당시 남방에는 여산 해원 스님의 '신불멸론(神不滅論)'으로부터 전개된 '법성론(法性論)'이 크게 유행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성론'이 전통적인 중국사상과 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양무제가 제창한 불성론은 바로 '진신론(眞

자비마을

자운사 이운식 및 우담바라 친견법회



출처: 인터넷 경주 e출판 뉴스

귀의 삼보하옵고

장애인인과 노인복지(독거노인)와 승려실버타운 설립 사회복지(소년소녀가장)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경주 자비마을 자운사에서 이운식 및 불교전설, 천연의 꽃 "우담바라" 친견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친견법회에 동참하시어 무량보덕 지으시길 기원합니다.



- ◆일시 : 2008년 4월 13일(일) 오전 10시(음 3월8일)
 - ◆장소 : 경주 자운사
 - ◆식순 : 1부 - 법회 / 2부 - 경로잔치 (풍물, 사물놀이, 불자가수공연)
- (☞ 찾아오시는길 : 불국사역에서 코오롱호텔 중간지점 좌측 경주국립문화재 연구소 맞은편 자운사)

자비마을 성봉사 회주 해연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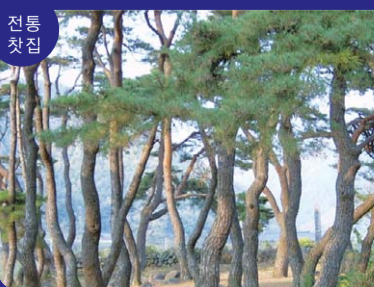
경북 경주시 마동 935-38 전화 054)746-7026, 776-1080

성주산 성봉사 054)775-2976 성봉사 대구포교원 053)256-2561 성봉사 부산포교원 051)775-7582 대한장애인총연맹경주지부 054)745-1638

스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향적원(香績園) 054)775-0014



슬밭사자로 054)745-1638